학교폭력 연루되면 드래프트 참가 불가

배구연맹 비상대책회의의
향후 치러질 V-리그 신인드래프트부터 적용
"이재영 · 이다영 자매 송명근 · 심경섭 등 연맹 차원 처벌 불가능"

한국배구연맹(KOVO)이 학교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인 선수들의 V-리그 입성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KOVO는 16일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KOVO는 앞으로 치러질 신인 드래프트부터 과거 학교폭력과 성범죄 등에 중하게 연루된 선수들을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드래프트 참가 선수는 이제부터 학교 폭력과 무관하다는 서약서와 해당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후라도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수에게는 최대 영구제명의 중징계를 내리고, 해당 학교에는 학교 지원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새 규정은 시즌 말로 예정된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1~2022 신인드래프트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KOVO는 또 학교폭력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 KOVO 규정에 의하면 도박, 금지약물 사용 등에 따른 징계는 가능하지만 아마추어 시절 논란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재영, 이다영(이상 흥국생명), 송명근, 심경섭(이상 OK금융그룹) 등 학교폭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선수들을 영구 제명하라는 팬들의 목소리에 KOVO가 응답하지 못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새 규정은 현 연맹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 · 제재금)를 토대 삼아 마련하기로 했다.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 유사 강간 등은 영구제명, 폭력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제명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KOVO는 새 규정과 별개로 이미 논란이 불거진 이들의 연맹 차원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무철 사무총장은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프로연맹에서 학생 선수 시절 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단과 대한배구협회의 징계도 내려졌다. 무기한 퇴출과 지도자 기회 박탈은 이미 중징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KOVO는 대한배구협회와 공동으로 초중고 대학생 및 프로선수들을 대상으로 익명 신고가 가능한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할 생각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웹툰 및 영상 제작으로 유소년 선수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신 사무총장이 주관한 이번 회의는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규정 손질을 위해 급하게 열렸다. 상벌위원회 소속 변호사 2명과 연맹 자문 변호사, 김건태 경기운영본부장, 조영호 총재특별보좌관, 황명석 상벌위원장, 대한배구협회 조용구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세 시간 가량 의견을 주고받았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성공적으로 리그를 마친 프로축구 K리그가 유관중으로 새 시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전북 현대모터스와 포항 스틸러스 경기에서 코로나19에 미뤄진 무관중 경기를 처음으로 관중들이 참여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이다.

K리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유관중 개막 준비

2월27일 개막… "방역 지침 맞춰 관중 입장 계획"
코로나 시대 발맞춰 구단별 시즌권 정책도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성공적으로 리그를 마친 프로축구 K리그가 유관중으로 새 시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난 15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이달 27일 개막하는 K리그1(1부)과 K리그2(2부)의 관중 입장이 가능해졌다.

방역 지침에 따라 2단계에선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이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까지 가능하다. 1.5단계에선 30%까지 늘어난다.

지난주까지 수도권의 경우 2.5단계가 유지돼 관중 입장이 불가능했다. 비수도권 일부 지방만 2단계로 제한돼 K리그 전체 유관중 개막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개막을 앞두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K리그가 관중과 함께 새 시즌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조만간 각 구단 실무자들과 유관중 개막에 관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단계별 방역 지침에 맞춰 유관중 경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시즌 K리그는 2월 개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5월8일에야 막을 올렸다. 코로나19로 대다수 국가에서 축구가 멈춰선 가운데 K리그는 전 세계 주요 축구리그 중 가장 먼저 개막해 화제가 됐다.

당시 K리그의 '코로나19 통합 매뉴얼'은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원 46개국에 공유되기도 했다. 또 월드리그포럼을 통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 등 빅 리그에도 소개됐다.

시즌 중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가 조정되면서 유관중과 무관중을 오가는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매뉴얼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시즌을 완주했다.

K리그의 유관중 매뉴얼은 이번 시즌에도 가동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또 전 좌석을 사전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받는다. 전자출입명부가 운영되고, 구단은 열화상 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를 비치해 발열 증상자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연맹 관계자는 "각 구단의 좌석 배치 상황에 따라 최대 수용인원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최대 30% 안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육성 응원이 금지되고 관중석의 음식물 취식도 할 수 없다. 지역 간 이동을 막기 위해 원정 응원도 금지한다.

구단들도 유관중 개막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수도권 구단 관계자는 "지난 시즌 경험이 있어 준비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관중과 함께 시즌을 시작한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구단별 시즌권 정책도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변화했다.

시즌 도중 무관중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구단은 연간회원권 대신 멤버십과 티켓북 제도 등을 도입했다.

전북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 제주 유나이티드 등은 멤버십을 운영한다. 가입자에게 입장권 선예매 권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FC, 포항 스틸러스, 서울 이랜드FC 등은 홈 경기 예매권을 묶은 티켓북을 판매한다. 성남FC, 수원FC, 대전하나시티즌, 울산 현대 등도 티켓북을 판매할 예정이다.

일부 구단은 연간회원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안산 그리너스와 부천FC, FC안양 등이 카드형 시즌권을 판매한다.

대구FC, FC서울, 수원 삼성, 경남FC, 김천 상무, 부산 아이파크, 전남 드래곤즈, 충남 아산은 경기 당일 입장권만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시즌 개막일이 늦춰지면서 27라운드로 축소됐던 K리그1은 38라운드로 정상 복귀한다. K리그2도 36라운드로 시즌을 완주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표류하는 女배구, 이번엔 신인 선수 학폭 의혹

국가대표 이재영-이다영(이상 흥국생명)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위기를 맞은 여자프로배구에 또 다른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신인 프로 여자배구 선수 학폭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글쓴이는 "초등학교 시절 3년간 다수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주요 가해자들 중 A가 배구단에 신입 선수로 입단 했다는 소식을 듣고 2월8일 배구단에 연락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거지같다, 더럽다, 죽어라, XXX, XX 등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내 유학 소식에 '유학가도 너 인생은 망했다'는 등 온갖 욕들을 3년간 학교 생활 중 들었다"고 떠올렸다.

지목한 가해자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다는 글쓴이는 "대충 얼버무려 사과를 했지만 '내 딸이 배구를 그만두면 너의 마음이 편하겠니'와 '너의 공황장애가 사라지겠니'라는 말을 덧붙이며 딸의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배구협회에 민원을 올리니 배구단 측에서 바로 연락이 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증거와 함께 '직접 만나서 대화하길 원한다', '내 얘기를 믿을 수 없다'면서 증거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당시에 내가 썼던 글들은 가해자들이 다 찢어 놓았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가해자 및 관계자와의 만남과 사과는 필요없다면서 "졸업하고 20살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 분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다"며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뉴시스

체육지도자 폭력 · 부정시 최대 5년 '자격정지'

문체부, 스포츠 선수 인권보호 강화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2020년 8월18일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령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불공정 ·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지난해 8월 5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 ·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신고자 · 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체육인에게 체육계 인권침해 · 비리 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자 ·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강화한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및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 · 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 보도 · 누설해서는 안되며, 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조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 · 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곧바로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보호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의 간섭을 배제하고 피신고인 · 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을 40명까지 확충(현재 26명)하고, 지역사무소를 3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 · 단체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피조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방해 · 거부 ·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 · 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9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되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도모했다.

또한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 · 비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

(성)폭력 범죄를 범한 체육지도자는 10~20년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뉴시스

태권도 웹 예능 나온다

태권도진흥재단, 컨버전스티비 오콘 등 영상 제작사와 협약 체결
태권 히어로 슈퍼잭 등 제작 지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장용갑)은 태권도를 소재로 한 웹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6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회의실에서 태권도진흥재단 김용 사업본부장과 ㈜컨버전스티비(대표 최정열), ㈜오콘(대표 김일호), ㈜피엘유에스(대표 홍성주) 등 국내 영상 제작사가 참석한 가운데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이 제작 지원하는 웹 예능은 '태권홈트브이'와 '태권 히어로 슈퍼잭' 등 2편이다. 먼저 '태권홈트브이'는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상황에서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태권도를 활용한 홈트레이닝 과정을 담은 4부작 예능이다. 출연진은 음악, 춤 등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 태권도 홈트레이닝 영상에 직접 참가하고 소개하는 등 태권도 수련의 재미와 효과를 알릴 계획이다.

'태권 히어로 슈퍼잭'은 EBS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꼬마 히어로 슈퍼잭' 캐릭터가 등장해 어린이들에게 태권체조를 가르치면서 체력과 인성을 키워가는 과정을 그린 콘텐츠다. 애니메이션과 실사 방식을 이용해 태권도에 대한 호감도와 수련동기를 높이고 향후 캐릭터화를 통한 다양한 상품 개발 등 태권도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회의실에서 태권도진흥재단 김용 사업본부장과 ㈜컨버전스티비, ㈜오콘, ㈜피엘유에스 등 국내 영상 제작사가 참석한 가운데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권도진흥재단과 제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 방향을 공유하고, 수준 높은 영상 제작을 위해 현장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용 사업본부장은 "두 작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다양한 채널에서 6월경 방영할 예정이다"라며 "코로나19 시대에 태권도를 향한 수련 열기를 북돋우고 어려움에 처한 태권도장 활성화에 도움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웹 예능 제작 지원 외에도, 태권도를 소재로 한 콘텐츠 산업과 태권도 문화의 연계 가능성 확장을 위해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